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소라섬터 주차장에서 열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

## 새만금 첫 도시, '수변도시' 첫 삽

### 1조 3000억원 투입, 2024년까지 부지 조성 완료 6.6km<sup>2</sup> · 인구 약 2만 5000명 규모 자족 도시 목표 내부개발 촉매제 전망 · 인접지역 상생효과 기대

새만금의 첫 도시로서 내부개발 본격화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수변도시'가 첫 삽을 퍼올렸다.

전북도는 새만금방조제 소라섬터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식을 지난 18일 열고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지역 국회의원, 군산·김제시장, 부안군수,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및 사업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 순간을 축하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km<sup>2</sup>(200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거주인구 약 2만 5,000명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의 감성인 내호와 외호가 어우러진 수변의 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에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는 등 수(水)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변도시 전체를 중·저밀도로 계획해 도시기능을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하는 등 거주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는 그간 지 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 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뒤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 위치는 지난달 개봉한 동서도로를 비롯한 새만금 방조제, 신항만, 새만금 인입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과 인접해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며, 향후 부지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지역이다.

또한, 서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고군산군도 등 군산, 김제, 부안 등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수요 확보도 가능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의 첫 도시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수변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하며 새로운 생태 문명을 여는 미래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 특별조사팀 가동 아파트 투기과열 잡는다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 불법중개행위 집중 단속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시 조직 내에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팀을 신설·가동기로 했다.

시는 전주 전역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거래시 다주택자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매물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지역·물건·대상자 선정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전문회의 구성·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특별조사팀을 통해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반면 시는 조정

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팀이 본격 가동 되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아파트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격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등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써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춰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집 없는 실업으로 힘겨워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3곳 50억원 지원

### 익산중앙 · 김제전통 · 임실시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우리지역 전통시장 3곳이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지원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각각 선정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익산중앙시장이 선정돼 총사업비 34억 1,000만원(국비 17억원, 지방비 17억1,000만원)으로 익산중앙시장 내에 2450㎡ 규모로 쇼핑, 문화, 교육, 체험, 놀이콘텐츠 등 고객 유인시설의 공간이 조성되고, 이곳에 우수청년상인 32명이 희망을 안고 등지를 뜰게 된다.

김제전통시장이 선정된 청년몰 활성화

화 지원사업은 내년 1월초에 개소될 청년몰에 총사업비 3억원이 지원되며, 청년상인들은 ▲공동수익모델인 도시락 배달 및 예약판매 ▲공동구매 및 공동관매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청년몰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임실시장이 선정돼 13억6,000만원(국비 8억2,000만원, 지방비 5억4,000만원)으로 1,038㎡의 면적에 주차공간 30면수로 제2주차장이 2022년까지 조성되며, 지금까지의 주변 불법 주차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은 "전라북도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비율이 90%로 이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염병 의식되면 '1339'로



## 무주 겨울을 열다

짜릿짜릿한 겨울  
포근포근한 겨울  
낭만가득한 겨울

무주에 오면 다 있습니다  
무주를 열면 다 있습니다